

『관점 Punto de Vista』지의 문화담론 연구*

조영실

단독/서울대학교

Cho, Young-Shil(2008), Discursos culturales de la revista *Punto de Vista*, *Revista Iberoamericana*, 19-2, pp. 165-197.

Este trabajo tiene por objetivo investigar el contexto y la concepción de la ‘política cultural’ de los intelectuales de izquierda argentinos de los años 1980s. La revista de cultura *Punto de Vista*, tiene una historia larga en el campo intelectual argentino. Para el estudio proponemos tres capítulos excepto la introducción y la conclusión.

En primer lugar, examinamos las condiciones históricas de la publicación de *Punto de Vista* y el contexto en que se propuso la ‘democracia cultural’. En segundo lugar, desarrollaremos la historia de la revista según etapas. Por último, el grupo de la revista emprendió su idea prestando varias concepciones de Raymond Williams, un crítico cultural inglés. Por lo tanto llegamos a la tercera tarea: estudiar cuáles conceptos y términos se han prestado y reproducido. Con esto podemos confirmar lo que quiere decir la ‘política cultural’ de la revista.

Con este estudio podemos llegar a comprender con cuán productividad funciona la aplicación precisa de una teoría a otro espacio cultural. La revista *Punto de Vista* ha sido un triunfo intelectual que floreció un discurso creativo y configurativo en la crítica cultural en la Argentina.

[*Punto de Vista* / Revista de Cultura / Beatriz Sarlo / política cultural / Raymond Williams; 『관점』 / 문화잡지 / 베아트리스 사를로 / 문화정치 / 레이먼드윌리엄스]

* 이 논문은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4-072-BM3062).

I. 서 론

스페인어로 ‘잡지(revista)’라는 말은 ‘다시 보다’라는 뜻의 ‘rever’에서 왔다. 이는 첫눈에 알아내지 못했던 것, 한 차례의 시도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찰함으로써 최초로 포착하지 못한 사물의 가려진 측면이나 핵심을 포착해 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잡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고찰의 가능성, 원래의 시각을 수정할 가능성을 그 존재기반으로 삼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르헨티나의 『관점 *Punto de Vista*』은 잡지의 그러한 본래적인 뜻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을 통해 수행된 관찰, 다시 말해 비판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사유를 통해 사회의 일반화된 고정관념들을 문제 삼은 논쟁적인 잡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관점』은 일군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간행물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담론을 소개하고 창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식인 잡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해 왔다. 특히 이 잡지는 좌우파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그로 인한 억압적이고 갈등적인 사회문화가 지배하던 1970년대에 일군의 청년 좌파 지식인들이 꾸리기 시작한 간행물이다. 시대적 논제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방향성의 제시, 새로운 이슈들의 창출 등 이 잡지가 30여 년 간 이룬 성과를 고려하면 20세기 후반의 아르헨티나 지식인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아트리스 사를로(Beatriz Sarlo)에 따르면 지식인 잡지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프로그램이란 ‘동시대성(contemporaneidad)’과 ‘실험성(experimento)’으로 요약된다(Sarlo, 2004). 즉, 지식인 잡지는 먼저 단행본과 달리 당대, 동시대, 현재를 다루어야 하고, 현재성, 시사성 자체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인 잡지는 또한 여러 사상들과 가설들의 실험대로서, 한 가지 해석법이 시도되고 사상들이 만들어져가는 공간 자체라는 점에서 실험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먼저 3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관점』지의 당대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또 실험성이라는 지식인 잡지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다른 한편 이들이 제시한 주요 논제들을 짚어봄으로써 서두에서 밝힌 잡지의 본래의 의미, 즉 ‘다시 보기’,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나아가 1980년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이들 좌파 지식인 그룹이 ‘문화정치(política cultural)’라는 개념을 제기했던 역사적 상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잡지가 아르헨티나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창출한 궤적과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되겠다.

II장에서는 먼저 『관점』지의 창간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잡지의 목적성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시기에 따른 잡지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특히 각 시기를 구분하고 당시의 주요 논제들이 무엇이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이 잡지가 ‘문화정치’를 제기한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이 그룹은 문화유물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문화이론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이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윌리엄스의 어떤 개념과 용어들이 이 그룹에게 유용성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윌리엄스의 개념을 어떻게 차용했는지 그 일치점을 검토하는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관점』그룹이 제기한 문화정치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줄 터이다.

II. 창간의 배경과 맥락

본고의 대상으로 삼은 『관점』은 ‘추악한 전쟁(Guerra Sucia)’을 발판으로 하여 탄생한 아르헨티나의 군부정권(1976-1983)의 정치적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8년에 창간되었다. 그리고 만 30년간 한 차례도 중단된 적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었으며, 2008년 4월 90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창간된 직후에는 군부정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당대의 아르헨티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글쓰기를 삼가고, 대신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의 정치, 역사, 문화 등을 다루었다. 또는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삼더라도 이미 과거가 된 시기, 가령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에 한정시키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아르헨티나를 다루더라도 역사, 사상사, 문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에 지면을 할당함으로써 당대의 아르헨티나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창간의 목적이 군부독재에 의해 말살되어가는 지식인 문화의 존속을 기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대안적이고 저항적인 지적 이론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군부정권의 서슬 퍼런 검열과 탄압 앞에서는 이렇게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를로는 초기의 조심스럽고도 은밀한 발간이 사유와 지적 작업의 퇴화를 막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처음 10호까지의 『관점』은 우리에게 일종의 죄수들의 맨손체조 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감방에서 신체적 기능을 잃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식이었다. 잡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의 사상과 [...] 독자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을 위해 발간했다(Arenes, 2003).

그리고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의 글쓰기는 군부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정치문화의 재건과 비판적 담론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화 이후의 『관점』 지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장 시급한 사회적 사안으로 이해했고, 그런 점에서는 알폰신(Raúl Alfonsín) 민선정부와 정치사회적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시기의 글들은 일차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 하에서 일어난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참여적인 성격의 활동과 더불어 권위주의 군부독재를 기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들과 군부독재의 성격을 분석하는 지적 작업들이었고, 둘째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유형을 탐구하고 모색하는 작업이었다.

이 장에서는 『관점』 지가 창간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잡지의 정치적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아르헨티나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좌파적 지식인 잡지들의 연결고리를 살펴봄으로써 『관점』지의 창간배경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비판적 좌파 지식

인 잡지는 1950년대에 다비드 비나스(David Viñas)가 이끌었던 『콘포르노 Contorno』(1953-1959)를 계점으로 본다. 『콘포르노』는 1959년 4월 9-10호를 끝으로 발간을 금지당했으나 1960년대에 『책들 Los libros』(1969-1971, 1971-1976)이 창간됨으로써 그 계보를 이어간다. 그러나 『책들』 또한 1976년의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 하에서 정간 당하고, 그 계보는 『관점』 지로 이어진다.

본고가 더 주목하는 것은 『콘포르노』보다는 70년대의 잡지인 『책들』에 대해서인데, 이는 이 잡지가 창간의 인적 구성에서 『관점』과 직접적인 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관점』지의 창간인인 알파미라노(Carlos Altamirano)와 사를로(Beatriz Sarlo), 삐글리아(Ricardo Piglia)는 이전에 『책들』의 편집진으로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책들』이 정간당하기 이전에 편집진을 탈퇴했다. 그것은 당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편집진 사이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책들』의 주축 세력이던 ‘혁명공산당(PCR: Partido Comunista Revolucionario)’은 페론 사후에 집권한 이사벨 페론-로페스 레가(Isabel Perón-López Rega) 정부를 반제국주의적, 제3세계적 정부로 규정하며 지지를 표명했고, 이에 이 청년좌파들은 주축세력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편집진을 탈퇴하게 되었다(Soto, 2004).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였던 『책들』은 성격을 달리하는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창간인인 엑토르 슈무클레르(Héctor Schmucler)가 편집장을 맡았던 1969년부터 1971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이 달의 아르헨티나 및 세계의 출판물들(Un mes de publicaciones en Argentina y el mundo)”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비평의 표명이라기보다 신간들에 대한 소개의 성격이 강했다. 문학작품에 대한 리뷰가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내용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고, 현대적인 잡지의 제본 형태가 아니라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발행되었다(Bosteels y Rodríguez-Carranza, 1995: 319).¹⁾

그러다가 1971년 11월 알파미라노와 삐글리아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고 이듬해 5월 그 뒤를 이어 사를로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편집장인 슈무

1) 타블로이드(tabloid)란 일반적인 신문 크기인 브로드시트(broadsheet)의 절반에 해당하는 판형으로, 브로드시트에 비해 전체 지면 수도 적고 기사 길이가 짧으며, 사진이나 삽화 등이 많이 들어있는 신문을 말한다.

끌레르를 도와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슈무끌레르는 점차 세 사람에게 잡지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넘겨주었고, 그에 따라 잡지의 성격은 이 세 젊은 좌파지식인의 경향성과 문제의식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했다(323). 제2기에 해당하는 이때부터 부제는 “문화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위하여(Por una crítica política de la cultura)”로 바뀌었고, 판형도 바뀌어 이후 『관점』이 취한 책자 크기의 제본형 레이아웃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책들』의 시기 구분을 고려하면 비판적 좌파 지식인 잡지의 계보는 결국 『폰토르노』에서 『책들』의 제2기를 거쳐 『관점』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책들』의 ‘문화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라는 화두는 이후 『관점』이 정치에 대해, 그리고 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표명한 입장이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물론 두 잡지는 유사성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두 잡지가 놓인 시대적 차이가 존재한다. 오우비냐(David Oubiña, 2004)는 그 차이를 지식의 장²⁾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책들』이 1950-60년대 지식의 장의 성장의 결과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관점』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 과정에서 사라지기 직전이었던 지식의 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유의 연결망을 재정립하고자 시도되었던 노력에 해당한다.

이제 『관점』이 창간된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책들』이 정간당한 이후 알파미라노, 사를로 그리고 베글리아는 국가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탄압과 검열로 분산된 지식의 장이 결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치적 탄압이 상존하는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비판적 시각이란 곧 지식의 장의 역할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잡지의 창간인들은 모두 맑스레닌주의적 혹은 마오주의적 정치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베글리아는 ‘공산주의전위(VC: Vanguardia Comunista)’ 소속이었고, 사를로와 알파미라노는 ‘혁명공산당(PCR)’ 소속이었다가 탈퇴한 후였다.³⁾

2) ‘장(場, *champ*, *campo*)’은 부르디외의 사회학에서 문화생산의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는 문학·예술 창조의 주체를 한 개인의 천재성이나 집단의 의식으로 보던 낭만적 개념과는 상이한 관점에서 특수한 사회적 관계의 공간, 곧 전체로서의 예술생산의 장이 창조의 주체라고 제시했다. ‘지식의 장(*campo intelectual*)’은 부르디외가 장 개념의 분석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지식 세계에 몸담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형식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현택수, 1998: 21&24).

당시 빼글리아가 소속되어 있던 ‘공산주의전위’의 지도부, 특히 베아트리스 페로시오(Beatriz Perosio)는 이들의 창간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Soto, 2004). ‘공산주의전위’는 좌파지식인들의 존중과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그룹에 속한 지식인들과의 교류도 원활한 조직이었다. 따라서 이 조직이 좌파 지식의 장을 규합할 잡지의 창간 필요성을 공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공산주의전위’와 『책들』의 전직 청년 편집진이 공감한 비판적 지식인들의 결합의 필요성은 잡지의 창간으로 귀결되었고, 그것이 『관점』의 탄생 맥락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잡지는 좌파적인 정치색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대비를 했다. 먼저 필진들이 혁명그룹 소속이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 군부독재의 탄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호르헤 세비야(Jorge Sevilla)를 발행인이자 주간으로 내세웠다. 세비야는 ‘공산주의전위’의 동지로서, 당시에는 정치적 행동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채 “부에노스아이레스심리학회(Asociación de Psicólogos de Buenos Aires)”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세비야의 이러한 학자로서의 공고한 지위는 『관점』의 연착륙을 보장해주었다. 명분상의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세비야는 잡지의 실질적인 발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11호까지 발행인 이름으로만 명시되었다. 그리고 독재정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81년 7월의 12호부터 사를로가 주간을 맡게 되었다.

또한 창간 초기에는 대부분의 집필진이 필명을 사용했는데 이 또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가령 빼글리아는 Emilio Renzi, 알파미라노는 Carlos Molinari, 사를로는 Silvia Niccolini, 그라무글리오(María Teresa Gramuglio)는 M.T.R., 바냐스(David Viñas)는 Gabriel Conte Reyes라는 가명으로 글을 실었다.

한편 이 잡지는 처음부터 ‘문화잡지(Revista de Cultura)’라는 부제를 달고

3) 혁명공산당(PCR)은 1918년을 원년으로 하는 아르헨티나공산당(PCA: Partido Comunista Argentino)에서 분리되어 나온 당이다. 이들은 아르헨티나공산당의 당 중앙위원회의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적, 비민주적 태도에 반발하여 1968년 PCA에서 탈퇴해 PCR을 구성했다. 한편 공산주의전위(VC)는 1965년 아르헨티나사회당(Partido Socialista Argentino)과 아르헨티나전위사회당(Partido Socialista Argentino de Vanguardia)의 구 멤버들이 모여 창당한 마오주의 좌파그룹이었다. 1976년 맑스레닌주의공산당(PC m-l: Partido Comunista marxista-leninista)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83년 다시 해방당(PL: Partido de La Liberación)으로 변경했다.

있다. 여기에는 ‘문화’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색채를 완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부의 검열과 탄압을 모면하고자 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1970년대 초반부터 ‘아르헨티나반공동맹(AAA: Asociación Anticomunista Argentina)’으로 대표되는 극우파의 행동주의와 여러 좌파혁명 세력 사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과, 이 잡지의 창간이 1976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잡지가] 창간된 후 1982년까지는 아르헨티나 정치에 관한 시사적인 문제제기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외견상의 명백한 부제가 오히려 그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즉, 문화 및 비평의 대상으로 선택된 것들 속에서 아르헨티나 정치의 시사적인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환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잡지는 문화적 저항의 전략을 통해 독재의 성벽을 포위하는 방식을 취했다(Oubiña, 2004).

‘문화잡지’라는 부제의 선택에는 물론 ‘문화’를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기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니까 발행인들은 문화를 정치의 대항 및 대안 수단으로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관점』 지의 주요담론: 시대에 따른 변화와 확장

『관점』의 역사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빠띠뇨(Roxana Patiño)는 1998년에 쓴 글에서 잡지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998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2000년대의 변천에 대해서는 다루져 있지 않다.⁴⁾ 그러나 2003년 4월 중추적인 운영위원 세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탈퇴함으로써 변동

4) Patiño는 1980년대의 문화변화 과정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과정과 결부시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글에서 1981년부터 1987년까지를 하나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1998a).

이 일어난 사실과, 지난 4월 결정된 잡지의 종간을 염두에 둘 때 잡지의 역사를 네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1기는 1978년 창간부터 민선정부가 들어선 1983년까지로 볼 수 있고, 2기는 말비나스 전쟁(1982.4.2-6.14)의 패배 이후 민주화로 이행이 가속화된 1983년을 기점으로 한 80년대로 잡을 수 있다. 3기는 1980년대 말, 구체적으로는 메넴 정부가 등장한 1989년을 기점으로 삼아 1990년대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기는 메넴 정권이 끝난 1999년 말부터 잡지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2003년 4월을 거쳐 종간 시점까지를 아우를 수 있고, 편의상 2000년대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러나 본고는 1기와 2기를 잡지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라고 파악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잡지의 담론의 제시가 자유로워졌고 미디어의 다양한 발전으로 잡지의 발행이 용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는 『관점』의 위상도 이전에 비해 공고화된 데 반해 1970, 80년대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데다 ‘지식의 장’이 문화생산의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중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잡지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적 지식인의 시선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관점』지가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보여준 성과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Patiño, 1998a).

1. 비유적인 글쓰기를 통한 저항(1978-1983)

앞에서 밝힌 것처럼 『관점』지는 창간 직후에는 비판적인 담론, 비판적인 지식 장을 창출, 보존하는 데 몰두했다. 즉,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에 대면해 눈감고 귀 막고 숨죽인 채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비판적 글쓰기를 통한 저항을 선택했다. 이미 1950년대부터 해외로의 망명이 있었지만 좌우파의 무력적인 충돌이 극심해진 1970년대에 이르러 많은 지식인들이 망명을 선택했다. 저항을 위해 망명을 선택하기도 했고 안위를 위해 망명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점』의 편집인들은 망명이 아니라 국내에 남아 비밀활동을 하는 쪽을 택했다. 사를로는 좌파 지식인으로서 국내에서 저항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날이 안위를 위협당하는 것이었지만

아르헨티나 사회의 현재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모색은 국내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직접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밝힌 적 있다.

민주화 이행이 1983년 10월 대통령선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연도 상으로 보면 『관점』의 제1기는 18호(1983년 8월호)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6월 말비나스 전쟁에서 패한 직후 갈띠에리(Galtieri) 장군이 물러났고 뒤를 이어 비뇨네(Bignone) 장군이 취임했으나 이미 군부정권의 위세는 약화되기 시작한 점, 민선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결정되어 82년 12월에 후보자들의 출마가 선언된 점을 고려하면 말비나스 전쟁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리가 없다. 특히 잡지에 실린 내용이나 논조를 기준으로 하자면 14호(1982년 3-7월호)까지를 1기로 보고 15호(1982년 8-10월호)를 제2기의 기점으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15호에서는 “민주주의가 등지를 틀 곳은 어디인가?(¿Dónde anida la democracia?)”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선정부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대 정치·사회적인 이슈의 직접적인 제안은 이전 호(號)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독재 치하에서 잡지의 주요 논조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처럼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때로는 의도적인 침묵과 누락을 선택하기도 하고, 삽화를 통해 메시지를 대신하기도 했다. 이는 사를로의 다음 인터뷰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취한] 전략은 가능한 만큼 경계를 밀어부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조심성이 있어야 했다. 맑스레닌주의에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습적인 언어, 다시 말해 우화의 언어이다. 잡지에 실린 글들은 하나같이 우화적인 언어를 통해 씌어졌고, 아르헨티나의 이데올로기 장에서 보자면 각자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침묵도 상징적인 것이었다. 가령 1978년의 축구 월드컵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실지 않았다. 나탈리오 보타나(Natalio Botana)의 책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전통 La tradición republicana』에 대한 리뷰를 썼던 기억도 난다. 이 리뷰는 독재 치하의 공화국의 상황에 대해 다루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앙헬 라마(Angel Rama), 진 프랑코(Jean Franco)를 비롯한 미국 맑시스트 등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실은 것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삽화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령 창간호 표지에는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작은 인형을 그려 넣어 암흑의 시대로부터의 탈출의 갈망을 이미지화했다. 그리고 “관점”이라는 잡지의 제목 자체도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붙여졌다(Arenes, 2003).

즉, 처음 잡지를 창간했을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행간에 넣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빠띠뇨(Roxana Patiño)는 이러한 전략을 “다른 것을 말하기(estar hablando de otra cosa)”(1998a) 방식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글쓰기 전략 및 출판 전략을 통해 잡지가 이 시기에 충력을 기울인 주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과두계충적이거나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문화 산물들에 대한 다시 읽기 작업이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의 귀족적인 지식인 잡지인 『수르』와 보르헤스에 대한 전면적인 다시 읽기가 두드러진다. 이 외에도 사르미엔토(Sarmiento), 호세 에르난데스(José Hernández), 1880세대, 독립백주년시기(Centenario)의 문화민족주의 등도 다시 읽기의 대상이었다. 이는 문화생산의 장에서 공인되고 인증된 체계나 담론에 대해 문제제기하겠다는 뜻이다. 좌파적인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이 이전에 지녔던 확신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가하는 것이다. 즉 20세기에 아르헨티나 문학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이유로 간과되었거나 잘못 이해되었던 텍스트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그 텍스트가 문화공간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담론들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 이론들과 사유들을 유포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문화공간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 청년좌파세력은 1976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쿠바혁명의 성공 이후 60, 70년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뿌리내린 혁명에 대한 오랜 열망을 되새김질해보게 되었다. 극우파와 쿠데타 세력의 범죄적 폭력이 비판의 대상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좌파세력들의 혁명 추구 방식에는 오류가 없었던가 하는 자성을 말한다. 이들은 혁명에 대한 열망과 그로 인한 ‘혁명 유토피아’의 극대화가 ‘국가재건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쿠데타의 등장에 빌미가 되었을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만연하는 납치와 실종, 암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혁명세력에게 제기되는 이러한 자성의 태도는 호응을 얻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당시 멕시코에 망명해 있던 일부 좌파지식인들도 이들과 유사한 입장을 내보였다. 혁명 열정의 패배를 인정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감은 망명지식인들과 국내체류 지식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하곤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가령 멕시코에 망명한 좌파들은 망명지에서의 투쟁을 도모하기 위해 종파를 떠난 연대를 모색했고, 그 결과 맑시즘적 좌파와 페론주의 좌파가 함께 『논쟁 *Controversia*』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다.⁵⁾ 그런데 『논쟁』은 망명지에서 발간된다는 단점 때문에 국내에 끼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관점』 같은 국내 잡지와 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했다. 『논쟁』은 망명지의 잡지여서 소외되어 있었고 『관점』은 젊은 지식인들이 창간한 신생 잡지로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은 쿠데타 발발의 사회문화적 원인, 지식인으로서의 당면한 시대에 복무할 방향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기고문을 상호 교환하여 신기도 했다. 이러한 작업은 강력한 검열과 외부 언론의 통제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안팎의 지식인들이 보여준 공동투쟁의 의지였다. 한편 망명객들과 『관점』지의 결속은 시대적 문제의식과 쟁점을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독재정권의 퇴진과 더불어 귀국한 후안 까를로스 포르탄티에로(Juan Carlos Portantiero)와 호세 아리코(José Aricó)는 이후 『관점』지의 집필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의 결합은 1984년 7월 “사회주의 문화 클럽(Club de Cultura Socialista)”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관점』지와 구성원이 겹쳐지기도 하지만 잡지와는 별개로 활동하며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5) 『논쟁』의 폴네임은 『아르헨티나 현실분석을 위한 논쟁 *Controversia para el análisis de la realidad argentina*』으로,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14호까지 발간되었다.

2. 민주주의 문화의 재건(1983-1989)

제2기의 잡지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군부의 종식과 알폰신 정권의 등장에 발맞추어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좌파 역사에 대한 자기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독재정부가 끝나기 직전 당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글은 15호(1982년 8-10월호)의 “민주주의가 등지를 틀 곳은 어디인가?(¿Dónde anida la democracia?)”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4호(1982년 3-7월호)에서 볼 수 있는 글의 제목도 뽀르탄띠에로의 “1900년대 아르헨티나의 민족국가와 민주주의(Nación y democracia en la Argentina del Novecientos)”이다. 이 글은 근대국가 수립(1880) 후의 아르헨티나에서 민족주의 기획과 민주주의 기획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충돌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대거 들어온 유럽인 이민자들로 인해 아르헨티나성에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되었고, 그에 따라 1900년대, 1910년대에는 아르헨티나가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관념에 균열이 찾아왔다. ‘민족’이라는 논제에 관한 1910년대의 아나키스트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상이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과 힘의 분산은 ‘대중의 민족화(nacionalización de masas)’를 통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전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주의세력과 군 세력이 결탁하여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1930)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뽀르탄띠에로의 글은 민족(nación)과 민중(lo popular), 그 두 기획 사이의 균열로 인해 아르헨티나 근대 민주주의의 시도가 불발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말비나스 전쟁과 그로 인한 군부의 몰락 이전에 쓰인 이 글에서 1930년대의 군부쿠데타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그칠 뿐, 20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30년의 독재 역시 보수주의와 군의 결탁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페론이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에 국한되면 역사적 고찰도 검열의 눈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되었음을 의

미한다. 『관점』의 지식인들 또한 이러한 허점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14호의 이 글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염원하며 쓴 글임은 분명하지만, 잡지의 제1기의 글쓰기 방식에 따라 암시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15호의 글에서는 이제 당면한 민선정부의 도래와 더불어 전 아르헨티나 사회가 연대하여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상에 대한 제시는 16호, 17호, 18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가령 16호(1982년 12월호)에서는 아돌포 베레스 에스끼벨(Adolfo Pérez Esquivel)에 대한 르포 글을 “민주주의와 참여(Democracia y participación)”라는 제목으로 싣고 있다. 에스끼벨은 아르헨티나 국가권위주의 시기 동안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활동가로서 이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한편 18호(83년 8월)에서는 “민족문화, 민중문화(Cultura nacional, cultura popular)”를 특집제목으로 삼아 아르헨티나의 문화 문제를 둘러싼 성찰을 전개하고 있다. 부제가 “아르헨티나 문화정치와 문화사의 문제들과 정의할 것들(Definiciones y problemas de la política y la historia cultural en la Argentina)”인 이 특집에서는 민족국가로서의 아르헨티나 주제, 국가와 사회의 관계, 문화적 헤게모니가 전달되는 연결망들 및 그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형식 등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고급문화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 실천들, 그리고 지식인 문화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 다양한 층위의 갈등하고 교차하는 문화의 존재들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논제인 세계주의(Cosmopolitismo)와 민족주의 사이의 대립을 고찰하고 있다.

실질적인 민주정권으로 이양된 후인 19호(1983년 11월호)에서는 다시 출발선상에 선 아르헨티나의 미래상을 사설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정치가 무력을 통해 참여하는 소수세력의 소유물이 아님을, 따라서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논쟁이 가능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정의와 공적인 개입을 통해 국가권위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인

권의 침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사회의 윤리성 회복의 바탕으로 삼을 것을 제기한다.

이 사실에서는 이렇게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향방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도 속했던 좌파의 실천방식에 대해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직전 과거에 대한 성찰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성찰은 포퓰리즘이나 도그마주의나 양분법적이고 기형화된 갈등에 빠지지 않는 생산적인 좌파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좌파 당들은 아르헨티나 사회의 실제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대립과 대항을 반복하느라 실제로 쟁점으로 삼아야 할 내용과 형식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전면적으로 보지 못한 채 눈이 멀어 있었다(Consejo de Dirección, 1983: 4).

이제 아르헨티나 민중의 에너지는 이러한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제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를 구성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적 참여 사이에 존재해왔던 오랜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20호(1984년 5월)의 특집주제 “좌파: 정치문화의 위기(La izquierda: crisis de una cultura política)”는 아르헨티나 좌파에 대한 총체적 성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1970년대의 무장게릴라를 통한 혁명이라는 목표가 좌절된 것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베르탄띠에로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난해한 관계(Socialismo o democracia. Una relación difícil),” 호세 누(José Nun)의 “반란의 합창(La rebelión del coro),” 삐에트로 잉그라오(Pietro Ingrao)의 “정치를 전쟁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반대하며(Contra la reducción de la política a guerra),” 오스카르 테란(Oscar Terán)의 “뒤늦은 논쟁: 맑시즘의 위기(Una polémica postergada: La crisis del marxismo),” 사를로의 “문화 앞의 좌파: 도그마주의에서 포퓰리즘으로(La izquierda ante la cultura: Del dogmatismo al populismo)” 등 여러 논자들의 글을 통해 좌파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가능성에서부터 1960-70년대 아르헨티나 좌파세력의 방법적인 선택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1960, 70년대의 사회적 대립은 단순히 군부[우파] vs 민간[좌파]가 아니라 군부 vs 페론주의 vs 좌파의 양상이었다. 거기에서 페론주의는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몬토네로와 같은 무장혁명 지향의 계열, 이른바 페론좌파라 불리는 계열, 가톨릭적 페론주의 계열 등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 시기 아르헨티나의 이데올로기 갈등 양상은 실제로는 상당히 중층적이고 복잡적이었다. 가령 맑시즘적 좌파 그룹은 페론좌파와 민주화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잡지 『우니도스 Unidos』는 페론주의 좌파가 발간하는 지식인 잡지였는데, 이들은 무장계렬라를 통한 혁명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바탕으로 한 폭력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성의 통감에 있어서 『관점』과 입장을 같이하기도 했다(Patiño, 1998b).

물론 국가권위주의에 대한 법적 심판과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강고했다. 좌파에 대한 반성의 문제가 쿠데타와 군부독재의 등장을 정당화한 것이 아님을 『관점』 그룹은 분명히 하고 있었다. 30호(1987년 7-10월)에서 “민주화 이행기의 군(Los militares en la transición a la democracia)”이라는 제목 하에 실린 세 사람의 글은 군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의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⁶⁾ 중간급 장교들에 대해서 ‘의무복종법(Obediencia debida)’과 ‘시효만료법(Punto final)’이라는 사면법을 통해 재판을 면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필자들의 어조는 더욱 단호하다.

3.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고찰(1989-1999)

『관점』의 3기는 까를로스 메넴(Carlos Saúl Menem)이 집권한 1989년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주된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삼았던 시기이다. 신자유주의자를 대표하는 메넴은 1989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6) 일다 사바토(Hilda Sabato)의 “우리는 그대로가 아니다(No somos los mismos),” 베세띠의 “가능한 민주주의(La democracia posible),” 그리고 사를로의 “퇴행하지 않기(No retroceder)”가 그것이다.

10년을 넘게 집권했다. 시장경제의 과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장기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화를 맞은 이후 1980년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구상하고 열망했던 것, 곧 아르헨티나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페론주의(Partido Justicialista)를 표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페론주의자가 아니었던 메넴은 알폰신 정부와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CONADEP), 그리고 오월광장어머니회 등 여러 인권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능해진 군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즉, ‘의무복종법’(1986)과 ‘시효만료법’(1987)이라는 두 개의 사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부분의 고급장교들이 재판에서 면제될 상황이 되고 말았다.⁷⁾ 이에 대해 『관점』 그룹은 창간 십 주년을 맞은 30호의 사설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이 시기에 『관점』 지의 상당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메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이와 관련하여 추악한 전쟁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찰,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모더니티에 대한 고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메넴이 두 개의 사면법을 통해 군 책임자들을 면죄하려는 시도를 하자 『관점』은 35호의(1989년 9-11월) 권두에 사면법 철폐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싣고 있다.

사면은 이 사람들[군 책임자들]이 나머지 시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대우를 통해 비호받는 것을 추인하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고유의 정의가 필요하고, 소송에 대한 제지는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월권이다(“Indulto para nadie”).

그리고 39호(1990년 12월호)에서는 인권문제와 재판을 통한 정의구현의 요구와 연관시켜 망각과 기억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억은 망각하지 않

7) 이 사안은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지속적인 항의를 낳았고, 결국 2003년 8월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대통령이 집권한 후 사면법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의회에서 폐기를 의결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는 것이되 동시에 어떠한 기억이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기억은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겪은 이후 수행되었던 성찰과 반성, 집단 기억의 형성 등의 논의와 맞물려 제시된다.

추악한 전쟁을 둘러싼 논의는 1990년대 중반에 다시 개진된다. 54호(1995년 4월)에는 쿠데타 발발 20년을 기하여 쓴 알따미라노의 “3월 24일(24 de marzo)”이, 그리고 55호에서는 다비드 블라우스타인(David Blaustein)의 다큐멘터리 영화 <유토피아 사냥꾼들 Cazadores de utopía>을 두고 쓴 “몬토네로스(Montoneros)”라는 글이 실렸다. <유토피아 사냥꾼들>은 70년대의 페론주의적 무장혁명세력이었던 몬토네로스들의 일종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다. 『관점』은 이 영화를 계기로 몬토네로스들의 투쟁이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지닌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몬토네로스는 혁명적 이상으로 인한 급진적인 대중주의이자 메시아적인 열망이었다고 파악한다. 페론주의의 신화적 표현이자 폭력의 물신화였음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는 『관점』 그룹이 일찍이 쿠데타의 발발과 더불어 자신들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반성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정치’는 대립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므로 새로운 생성을 가능케 하는 ‘문화’를 통해 정치의 과열을 극복하고자 한 창간 초기의 목적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편 메넴 정부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령 34호(1989년 7-9월호)의 사설에서 ‘피노체트가 도입한 모델’, 곧 칠레식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한 메넴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39호에서 사를로는 “메넴(Menem)”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권한 지 1년 반이 흐른 후의 메넴 정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 글에서 메넴주의는 페론주의의 가면을 쓴 시장주의로 인식되고 있다. “페론주의, 곧 사회정의와 분배주의의 정반대 얼굴에 해당하는”(Sarlo, 1990: 1) 메넴의 경제정책은 결국 아르헨티나 사회의 여론의 개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냉소하는 정치문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1983년 민주화와 더불어 일었던 올바른 정치문화, 곧 문화를 통한 정치에의 희망은 메넴의 등장으로 인해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정치문화가 퇴행,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를로는 메넴의 정

치문화는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모든 가치를 경멸하는 ‘냉소주의’라고 단언하고 있다.

52호(1995년 8월)에 실린 알파미라노와 누(José Nun) 공저의 “선거가 끝난 후 (Después de las elecciones)”는 1995년 5월 선거를 통해 다시 메넬이 집권하게 된 상황에서 정치적 대안을 성찰하고자 논의한 바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또한 메넬의 재집권이 아르헨티나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를 악화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게 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과 ‘지식의 장’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테마로 다뤄졌다. 37호(1990년 7월호)에 실린 오스카르 테란(Oscar Terán)의 “1956-1966년 아르헨티나의 지식인과 정치(Intelectuales y política en la Argentina 1956-1966),” 44호(1992년 11월)의 아드리안 고렐릭(Adrián Gorelik)의 “도시의 지식인: 비판과 혁신에 대한 질문(El intelectual en la ciudad: interrogantes sobre la crítica y la reforma),” 그리고 47호(1993년 12월)의 사를로의 글 “의고적인가 주변적인가? 세기말 지식인의 상황(¿Arcaicos o marginales? Situación de los intelectuales en el fin de siglo)”는 그 대표적인 글이다.

사를로는 위의 글에서 지식인이 비판적 실천가의 역할에서 지식의 전문성을 담보한 ‘전문가(experto)’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arlo, 1993a: 4). 즉 20세기 말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가 더욱 용이해질 거라고 기대되었으나 미디어 민주주의는 허구일 뿐 실상은 매스미디어 문화는 통일성과 단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대중들은 미디어의 작동 속에서 오히려 파편화되어 간다. 그리고 지식인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로서 미디어에게 지식을 파는 전문가에 머물 뿐이고, 지식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던 끈은 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인 주제에 대한 『관점』 그룹의 비중은 일찍부터 지대한 것이어서 사를로는 1986년 8월의 27호에서 지식인에게 문화시장의 단일화를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의 지식인은 ‘좌파 지식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것에 눈과 귀를 집중시켜 예술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정치적 시각이란 한 가지 미학의 실효성을 증명함으로써 “취향을 천편일률적

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시장의 특성에 반하는 것이고, 시장의 “단일화에 반대하여 참여의 권리를 긍정하는 것”(Sarlo, 1986: 4)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지식인의 대안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4. 모더니티와 글로벌리즘에 대한 고찰(1999-2008)

『관점』지의 4기는 10여년에 걸친 메넴의 집권이 끝난 후 라디칼 당(UCR)의 페르난도 델라루아(Fernando de la Rúa)가 집권한 1999년 말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99년 말부터 2001년까지의 아르헨티나 사회가 총체적 위기 상태였고, 그 대부분은 메넴 시기의 민영화와 국고의 손실 등이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한다면 2001년을 4기의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사실 델라루아 시기의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와 파업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른 한편 II장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2004년 3월 『관점』 그룹은 창간 세대에 속하는 일부 임원의 사임을 맞게 된다. 이는 일종의 내분으로 비춰지지만 편집진은 분열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여 79호(2004년 4월호)에 세 사람의 ‘사임의 변’을 실고 있다.

사임을 표명하고 잡지를 떠난 멤버는 까를로스 알파미라노와 일다 사바또, 마리아 페레사 그라무글리아이다. 이들은 사를로와 베세띠와 더불어 그룹의 제1세대로서 오랫동안 잡지의 핵심적인 글들을 써왔다. 사바또의 사임의 변에는 집행부 내의 비민주주의를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편집장으로서 사를로의 주도권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잡지에 실릴 글을 매 호마다 편집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것이 언제부터가 자신들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져 감을 가는 듯했다는 알파미라노의 말 역시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한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젊은 세대의 유입과 참여가 활발해져 가면서 시대적인 주제들을 강하게 제시하는 1세대의 특성과, 현대적인 영상문화, 도시문화, 미디어문화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는 젊은 세대의 특성 사이에 생겨난 균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도 해보게 된다.

한편 70호(2001년 8월)에서 알리고 있는 것처럼 잡지의 웹사이트

(www.BazarAmericano.com)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75호까지 묶은 CD롬이 제작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관점』의 대중적 접근성이 증폭되었음을 물론이다.

이상에서 거론한 변화들, 즉 라디칼 당(페르난도 델라루아)으로 교체되었다가 다시 페론당(네스포르 키르치네르)으로 교체되는 식의 정권교체나, 『관점』 그룹 구성의 외형적인 변화들을 배제하고 본다면 이 4기의 주요 쟁점들은 3기와 아주 다르지는 않다. 다만 미디어와 영상문화(영화, 텔레비전 등), 포스트모더니티 도시 등의 주제가 3기에서보다 훨씬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잡지는 84호(2006년 4월)부터 90호(2008년 4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세기의 평가’(El juicio del siglo) 시리즈를 싣는다. 2010년까지 기획 예정이라고 표명되어 있었고 여기서의 ‘세기’란 독립혁명백주년인 1910년부터 2백주년인 2010년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니 명실상부한 아르헨티나의 현대를 아우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시리즈는 문화적 갈등, 미디어, 영화, 탱고, 페론주의 등의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의 리스트를 통해 『관점』 그룹이 20세기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문화 및 문화담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IV. 『관점』지의 문화이론

II장에서 우리는 『관점』이 ‘문화잡지’라는 부제를 선택한 이면에 ‘문화’와 ‘정치’를 대립 또는 대조시킨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문화를 정치의 대안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은 아르헨티나 좌·우파 간의 오랜 정쟁과 테러리즘의 역사는 ‘정치’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승리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인식했다. 그러한 일종의 정치 지상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비판적 문화, 일명 ‘문화정치(política cultural)’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고가 아르헨티나 지식 장에서 『관점』이 지닌 역할을 윌리엄스

의 문화 개념과 연결지어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이 잡지가 ‘문화정치’를 표방한 잡지라는 데 있었다.

이 장에서는 『관점』 그룹이 어떤 맥락에서 문화정치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당시에 발행되었던 다른 잡지들과 비교하자면 이 잡지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간들에 대한 소개와 서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책들』과 비교했을 때 서구의 역사 및 문화이론서들에 대한 번역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그것은 편집진들의 고유한 시각을 반영한 일종의 해석 작업이기도 했다. 서구유럽의 글들에 대한 번역작업이라는 점에서는 1920-30년대에 빅토리아 오캄포(Victoria Ocampo)가 이끌었고 1970년대까지 발간되었던 『수르 Sur』와 유사성이 있다. 『수르』와 『관점』의 공통점은 말하자면 아르헨티나라는 지역 문화와 서구유럽이라는 보편 문화 사이의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르』는 과두계층에 의한 보수적이고 엘리트적인 잡지였고, 그에 반해 『관점』은 혁명 좌파 지식인 그룹에 의한 잡지였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점』 그룹이 서구의 문화이론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해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장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점』 그룹은 『책들』과 결별할 때부터 아르헨티나 좌파 그룹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프랑스 구조주의적 결정론의 영향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과잉에 대한 인식이었다. 혁명적 좌파세력들은 사회의 구조적 결정성, 계급의 대립성을 맹신한 채 정치적 이데올로기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관점』 그룹에게 일종의 대안적 이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레이먼드 윌리엄스였다.⁸⁾ 사를로는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시절에 레이먼드 윌리엄스 읽기가 생산성 있고 강도 있게 전개되었던 동기들을 밝힌 글(1992)에서 윌리엄스 글들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특성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를 수용할 수 있게 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한다.

8) “레이먼드 윌리엄스 읽기는 적어도 1978년 창간된 『관점』의 지식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는 중심이었다”(Sarlo, 1992: 31).

윌리엄스의 수용에 관해 말하자면 지식인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혁명좌파 출신의 지식인 그룹이 수요층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문화연구의 지평을 예견한 사람들이다. 우리 그룹은 문학적인 사건들에 대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었고, 문화 및 문학에 관한 맑시즘적 입장들(아도르노, 루카치, 그람시)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대상들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론적 관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나아가 완전히 재검토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Sarlo, 1992: 30).

레이먼드 윌리엄스에 대한 『관점』의 열의가 지면을 통해 처음 표현된 것은 6호(1979년 7월)에 실린 인터뷰였다. 사를로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윌리엄스와 런던 골드스미스 칼리지의 학장을 맡고 있던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rt)에 대한 인터뷰를 실음으로써 알튀세를 비롯한 프랑스 이론가들과는 달리 두 영국의 문화이론가가 아르헨티나에서 미지의 영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두 이론가의 영역이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 ‘문화담론’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까지 펼쳐져 있음을 설명한다.

윌리엄스와 호가트는 단순히 문학사회학자인 것도 아니고 역사가나 비평가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여러 저서들을 통해 사상사, 문화사, 대중문화사회학, 매스커뮤니케이션사회학, 문학 등의 영역을 다루어왔다. 호가트도 윌리엄스도 문화생산, 문화의 형식, 문화의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하는 틀을 긍정함으로써 사회학적 환원주의라는 괴로운 유명을 불식시켰다(Sarlo, 1979: 9-10).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영국의 문화주의 전통에 위치하고 있는 이론가이다. 『관점』 그룹이 윌리엄스에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윌리엄스의 근본적인 역사주의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아르헨티나의 극단적인 구조주의 경향들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알튀세주의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는 맑시즘으로부터 ‘사회적 구성(configuraciones sociales)’이라는 개념을 소거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에 비해 윌리엄스는 사회의 구조적 결정성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적 과정에 초점

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성적 과정’, 다시 말해 역사적 맥락 안에서 문화를 읽어내고자 하는 윌리엄스의 원칙은 당시의 『관점』 그룹에게 사회의 가변성과 변형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두 번째로 윌리엄스는 사회의 구성적 과정들이 지니는 중요성 이외에도 주체들의 행위의 중요성을 복구했다. 윌리엄스는 주체를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담지자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 역시 알튀세주의와의 결별이었다. 알튀세는 사회주체라는 개념을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로 인식했던 것이다. 기존의 주체 개념을 폐기한 윌리엄스의 주체 개념은 『관점』 그룹에게 사회의 복합적인 문화 현상들에 대한 유기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관점』 그룹이 윌리엄스를 차용할 당시에 윌리엄스 읽기는 이 그룹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해주었다. 한편으로는 문학비평과 문화비평의 공간을 열어주었고, 문학사회학의 지평을 문화사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확장은 새로운 대상들(가령 대중문학, 매스커뮤니케이션 등)과 새로운 관점들(지식인 사회학, 문화적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윌리엄스 읽기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것은 앞 장에서도 확인한 바처럼 『관점』 그룹에게 혁명좌파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의미했다. 즉, 그들 “자신도 일부였던 라틴아메리카 혁명좌파의 가장 극단적 형태들에 대한 비판의 논거들”(Sarlo, 1992: 310)을 윌리엄스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는 맑시즘과 ‘현실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의 시기였다. 따라서 맑시즘은 많은 위협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가령 어떻게 정치적 회의주의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환멸과 불신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좌파 전통을 비판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찾아왔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윌리엄스의 『2000년을 향하여 Towards Two Thousand』는 중요하고 논쟁적인 저서가 되었다. 비록 『관점』의 지식인들이 윌리엄스보다는 동유럽체제들에 관해 더 비판적이긴 했지만, 당시 이들에게 결여되어있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윌리엄스로부터 제공받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이 저서에는 여전히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유지되고 있었다.

『관점』 그룹은 윌리엄스의 아이디어들이 갖는 미묘한 연결방식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윌리엄스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주의(culturalismo)와 혁신주의(reformismo) 사이의 그러한 미묘한 관계가 윌리엄스 이론의 주된 생명력이라고 보았다.

『관점』 그룹은 또 프랑스 구조주의 이론이 배제시켰던 것을 레이먼드 윌리엄스에게서 발견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재구성을 둘러싼 논의였다. 이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는 저서는 『장구한 혁명 The long revolution』(1961)과 『맑시즘과 문학 Marxism and literature』(1977)이었다. 이 저서들에서 윌리엄스는 과거 역사의 의미, 곧 ‘살아진 것(lo vivido)’의 의미를 복구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살아진 것’이란 재구성 과정에 대해 저항적이고 모호한 것이면서, 동시에 재구성 과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평으로 제시된다. ‘살아진 것’의 재구성이란 하나의 가설이고, 문화적 텍스트들을 통해서 ‘살아진 것’의 밑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는 ‘살아진 문화(cultura vivida)’라는 개념을 고집한다. 이는 ‘살아진 것’이란 경험의 구체적인 층위에 해당하므로 ‘살아진 것’의 의미를 포기하는 것은 논의의 구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살아진 것’이 과거에 대해 갖는 설명적인 힘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는 이런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딜레마를 ‘정서구조(estructura de sentimiento)’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 개념은 『장구한 혁명』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정서구조는 한 시대의 모든 문화적 시기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그 ‘문화의 전반적인 색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정서구조’에서 아직 이데올로기, 관습, 실천, 장르 등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은 새로운 측면들과 새로운 특질들의 출현을 발견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정서구조는 과거에 살아진 것의 진정한 줄거리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전적으로 부과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모순적이기도 한 시

도였다. 정서구조는 정서구조를 통해 정의하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붙잡기 힘든 개념이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또다시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문화적 가설에 해당한다. 윌리엄스 자신이 『맑시즘과 문학』 이후 ‘정서구조’ 개념에 대한 반박이 그 개념의 방법론적 이론적 가능성보다 더 강했음을 인정하면서 그 개념을 포기했던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사를로 역시 이 개념이 모순어법적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개념은 우리들의 행위에서 가장 사라지기 쉽고 가장 만져보기 어려운 공간에 해당하는 ‘정서’란 것 안에서 작용하긴 하지만, ‘구조’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굳건한 것이고 또한 규정된 것[이다](Sarlo, 1992: 314).

그러나 ‘정서구조’는 윌리엄스 문화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아마도 가장 제시적인 이론의 하나이다. 그것은 경험과 문학 담론의 모순적이고 충돌하고 뒤섞이는 측면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과 문학 담론들이란 형식적·개념적 정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상들과 토픽들이 서로 교차되는 공간이다. 이 때 사상들과 토픽들은 주관적인 것에서부터 이데올로기, 철학적 시스템 안에 강하게 등록된 것에 이르기까지 상이하다. 정서구조는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제도화되기 이전 방식의 의미들과 가치들을 조직화하고, 그것들이 출현하는 시점을 착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정서구조 개념은 『맑시즘과 문학』(1977)에서 제기된 세 용어들과 조립되는데, ‘지배적인 것(lo dominante),’ ‘잔여적인 것(lo residual),’ ‘출현하는 것(lo emergente)’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이 세 용어들은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어떠한 시점에서든 시간성도 다르고 기원도 다른 요소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곧 이들은 문화의 내부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역동적인 관계와 대립적인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해계모니를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잔여적인 요소들의 총합과 대립시키거나, 새로운 형상들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출현하는 요소들의 총합과 대립시킴으로써 지배적인 영역에

의해 공고화되는 헤게모니 개념을 복합화한다. 한 문화의 역동성이란 이 요소들의 동시대적인 것들에 의해 유발된, 분기하고, 대립적이고 선택적이고 의고적인 변이형들에 기대고 있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헤게모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한 문화 안에서 공통의 지평에 가담하면서 충돌의 경계선들을 해소하고, 밀도 있는 동시성 속에 존재하는 상이한 것의 공존이라는 문제”(Sarlo, 1993c: 15)를 제기하는 것이다.

출현하는 것, 잔여적인 것, 지배적인 것의 구별은 문화적·예술적 도구들의 구성적 이질성이라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즉, 문화적·예술적 도구들이 생산과정과 사회적 작용 안에 단순한 방식으로 등록된다는 관념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경향들의 대립의 장이거나 공존의 장인 것이다. 생산과정과 그것의 사회적 작용은 결과적으로 여러 시간성들이 분산하고, 상이한 경험들이나 이데올로기들, 사회적 실천들의 구체화과정이 펼쳐지는 능동적인 공간들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사회문화적 담론에 있어서 윌리엄스의 등장이 의미한 것은 기존에 지배적이던 프랑스 이데올로기들로부터의 이탈이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이론적 전통의 상이함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점이다. 왜냐하면 사를로도 고백했다시피(1993c: 14) 1970년대의 영국 학자들에게는 윌리엄스의 문화주의 전통과 단절하고 유럽 대륙의 전위적 이론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르트, 알튀세, 푸코 등의 프랑스 이데올로기였던 데 반해, 아르헨티나에서는 프랑스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영국의 경험주의 전통에 의거한 윌리엄스의 연구가 전환의 발판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정치 및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그룹의 제안은 발간인 자신들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좌파 지식인 전체의 정체성에 대한 재점검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좌파 세력이 혁명의 뜻대로 삼아온 맑시즘 이념이 1960년대의 혁명기에는 커다란 추동력을 발휘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군부독재 시기 동안에는 무용하고 무능했다는 자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가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던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다시 말해 계급적 대립구도를 근간으로 하

여 이념적 투쟁을 전개해 왔던 1970년대 좌파 세력의 혁명적·실천적 역사는 이념 자체의 절대성에 매몰되었을 뿐더러 정치적 승리 자체에 목적을 두는 파행성으로 치달았고, 그것이 결국 군부독재가 들어설 사회문화적 조건을 만들었다는 자각이 일어난 것이다(Patiño, 1998b). 그리고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될 무렵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테제가 아니라 문화적 민주주의를 새로운 목표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때로 우경화로 비춰져 급진좌파 세력으로부터 ‘좌파적 자유주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는 아직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완결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민사회의 건설 및 일상적 문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표방하는 세력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비난일 것이다.

V. 맺음말

『관점』 그룹의 이론적 관심사는 우리의 『문화과학』 그룹을 연상시킨다. 비록 시기적인 차이, 곧 『관점』은 1980년대, 더 정확하게는 1970년대 말부터 문화담론을 제기했던 데 비해 『문화과학』 그룹은 1990년대 초반에 구성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만,⁹⁾ 두 그룹의 문화담론에는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문제제기의 맥락의 유사성이기도 하다. 즉, 양자는 좌파의 민주주의적 이념이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자각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관점』 그룹은 문화에 대한 구성적 이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엘리트 잡지로서만 인식되었던 『수르』에 대한 다시 읽기나, 보수주의자 혹은 비정치적인 문인이라고 배척되었던 보르헤스에 대한 다시 읽기는 그 문화

9) 『문화과학』은 1992년 봄에 창간된 계간지이다. 1991년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책을 기획하던 중에 강내희, 심광현 두 교수가 의기투합해 잡지 창간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외에 타계한 문학평론가 이성욱씨, 박거용(상명대·영문학), 이득재 교수(대구가톨릭대·러시아문학)가 합류해 과학적 문화이론, 언어, 욕망, 육체, 공간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한 뒤 『문화과학』에 그 성과를 풀어냈다. 이후 문화평론가 고길섭과 홍성태(상지대·사회학), 박성수(해양대·철학), 최형익(한신대·정치학), 원용진, 이동연 교수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적, 문화적 작업이 생산되었던 구체적인 공간의 생동성을 고찰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문화생산의 장 자체의 고유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민족국가와 민족성에 대한 아르헨티나 사회의 집착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문화민족주의의 정서구조가 남긴 ‘잔여적인 요소’라고 이해했다. 곧 이들의 작업은 기존의 좌파지식인들이 상투적으로 다루어 오던 대상들에 대한 다시 읽기, 문화를 그 형성과 생산의 장 안에서의 읽어내기였다. 그리고 이때 ‘민족적,’ ‘민중적’ 등의 범주를 떠나 텍스트를 한 시대의 정서구조가 반영된 문화적 산물로 읽고자 하는 태도, 텍스트를 한 시대의 지배적 문화, 부상하는 문화, 잔존하는 문화 사이의 갈등과 교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바로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수많은 영국 문학텍스트, 문화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립해 온 문화유물론적 인식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03.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 김영희. 1993a. 「레이먼드 윌리엄즈. 그의 문화적 유물론에 대하여」. 《이론》, 봄호: 151-171.
- _____. 1993b.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박거용. 1992. 「지배문화 분석의 한 모델: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유물론」. 《문화과학》, 여름호: 135-152.
- 심광현. 1998. 『탈근대 문화정치와 문화연구』. 서울: 문화과학사.
- _____. 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 조영실. 2003. 「포스트모던문화와 지식인에 대한 베아트리스 사를로의 시각」. 《라틴아메리카연구》, 16(1): 359-371.
- _____. 2006. 「테러리즘의 기억을 둘러싼 지식인들의 성찰적 담론」. 《라틴아메리카연구》, 19(2): 97-125.
- 존 스토리. 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 현택수. 1998.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 Altamirano, Carlos. 1982. "La oposición en el socialismo real." *Punto de Vista*, 14: 14-17.
- _____. 1983. "Algunas notas sobre nuestra cultura." *Punto de Vista*, 18: 6-10.
- _____. 1984. "Imágenes de la izquierda." *Punto de Vista*, 21: 5-8.
- _____. 1986. "El intelectual en la represión y en la democracia." *Punto de Vista*, 28: 1-4.
- _____. 1988. "Raymond Williams." *Punto de Vista*, 33: 1-2.
- Altamirano, Carlos y Beatriz Sarlo. 1977; 1993. *Literatura/Sociedad*. Buenos Aires: Edicial S.A.
- _____. 1980, 1993. *Conceptos de sociología literaria*. Buenos Aires: CEAL.
- Altamirano, Carlos. et al. 1999. "Debate sobre la transición." *Punto de Vista*, 65: 1-12.
- Arenes, Carolina. 2003. "Marcar la diferencia." entrevista con Beatriz Sarlo, Noticias de Suplemento Cultura. *La Nación*(2003.12.14.). 2008년 9월 17일 검색. https://www.lanacion.com/nota.asp?nota_id=554973
- Bosteels, Wouter y Luz Rodríguez-Carranza. 1995. "El objeto sado. Genealogía de un discurso crítico: de *Babel*, revista de libros(1989-1991) a *Los libros*(1969-1971)." in Roland Spiller(ed.). *Culturas del Río de la Plata*(1973-1995). *Transgresión*

- e intercambio*. Frankfurt-Main: Vervuert. 313-338.
- Consejo de Dirección. 1983. "Editorial." *Punto de Vista*, 19: 2-3.
- Corbatta, Jorgelina. 1998. "Veinte años después: Beatriz Sarlo y la cultura de la resistencia en Argentina durante la Guerra Sucia." bibliotecavirtual.clacso.org.ar/libros/lasa98/Corbatta.pdf.
- Dalmaroni, Miguel. 2004. "Conflictos culturales: notas para leer a Raymond Williams." *Punto de Vista*, 79: 42-46.
- Olmos, Ana Cecilia. 2004. "Práctica intelectual y discurso crítico en la transición. *Punto de Vista* y *Novos Estudos* del CEBRAP." *Revista Iberoamericana*, LXX(208-209): 939-955.
- Ortiz, Sergio. 2004. "Sotto Vargas(PCA) miente." [Polémica sobre las posiciones de partidos de izquierda ante el golpe de 1976. Réplica del Partido de la Liberación]. 2008년 8월 18일 검색. <http://www.pl.org.ar/polemica.htm>.
- Oubifia, David. 2004. "Una lectura sobre *Punto de Vista*." [Homenaje a cuatro revistas culturales de los últimos veinte años: *Punto de Vista*]. 26 de marzo, 2004. Centro Cultural Ricardo Rojas. <http://www.bazaramericano.com/revista/oubina.htm>.
- Pagnini, Andrea y Erna Von der Walde. 1995. "¿Qué intelectuales en tiempos posmodernos o de 'cómo ser radical sin ser fundamentalista'." in Roland Spiller(ed.). *Culturas del Río de la Plata(1973-1995)*. *Trasgresión e intercambio*, Frankfurt-Main: Vervuert. 287-312.
- Patiño, Roxana. 1998a. "*Punto de Vista*, la persistente mirada intelectual." *Revista Interamericana de Bibliografía*, 1. 2008년 9월 7일 검색. http://www.educoas.org/portal/bdigital/contenido/rib/rib_1998-1/articulo11/index.aspx?culture=es&navid=201.
- _____. 1998b. "Culturas en transición: reforma ideológica, democratización y periodismo cultural en la argentina de los ochenta." *Revista Interamericana de Bibliografía*, 2. 2008년 9월 10일 검색. http://www.educoas.org/portal/bdigital/contenido/rib/rib_1998-2/articulo12/index.aspx?culture=es&navid=201.
- _____. 2006. "Revistas literarias y culturales argentinas de los 80." *Ínsula*, 715-716. 2008년 9월 9일 검색. <http://www.revistasculturales.com/articulos/37/insula/596/4/revistas-literarias-y-culturales-argentinas-de-los-80.html>.
- PEHESA. 1982. "¿Dónde anida la democracia?" *Punto de Vista*, 15: 6-10.
- _____. 1983. "La cultura de los sectores populares." *Punto de Vista*, 18: 11-14.

- Ponza, Pablo M. 2007. "Los sesenta-setenta: intelectuales, revolución, libros e ideas." *Revista Escuela de Historia*, 1(6). Salta: Universidad Nacional de Salta. <http://www.scielo.org.ar/pdf/reh/v1n6/v1n6a08.pdf>.
- Sarlo, Beatriz. 1979. "Raymond Williams y Richard Hogart: sobre cultura y sociedad." *Punto de Vista*, 6: 9-18.
- _____. 1983a. "La perseverancia de un debate." *Punto de Vista*, 18: 3-5.
- _____. 1983b. "Literatura y política." *Punto de Vista*, 19: 8-11.
- _____. 1984a. "La izquierda ante la cultura: del dogmatismo al populismo." *Punto de Vista*, 20: 22-25.
- _____. 1984b. "Una alucinación dispersa en agonía." *Punto de Vista*, 21: 1-4.
- _____. 1985. "Intelectuales: ¿Escisión o mimesis?" *Punto de Vista*, 25: 1-6.
- _____. 1986. "Una mirada política: defensa partidismo del arte." *Punto de Vista*, 28: 1-4.
- _____. 1988. "El campo intelectual: un espacio doblemente fracturado." in Saúl Sosnowski(ed.). *Argentina: represión y reconstrucción de una cultura*. Buenos Aires: EUDEBA.
- _____. 1989. "Lo popular en la historia de la cultura." *Punto de Vista*, 35: 19-24.
- _____. 1990. "Menem." *Punto de Vista*, 39: 1-4.
- _____. 1992. "Raymond Williams: Una relectura." in Mabel Moraña(ed.). 2000. *Nuevas perspectivas desde/sobre América Latina. El desafío de los estudios culturales*. Santiago de Chile-Pittsburgh: IILI/Editorial Cuarto Propio. 309-317.
- _____. 1993a. "¿Arcaicos o marginales? Situación de los intelectuales en el fin de siglo." *Punto de Vista*, 47: 1-5.
- _____. 1993b. "Notas sobre política y cultura." *Cuadernos hispanoamericanos*, Julio-Septiembre, 517-519: 51-64.
- _____. 1993c. "Raymond Williams: Una relectura." *Punto de Vista*, 43: 12-15.
- _____. 1994. "¿La voz universal que toma partido? Crítica y autonomía." *Punto de Vista*, 50: 5-9.
- _____. 2003. *La pasión y la excepción*. Buenos Aires: Siglo XXI.
- _____. 2004. "Una revista en presente." [Homenaje a cuatro revistas culturales de los últimos veinte años: *Punto de Vista*]. 26 de marzo, 2004. Centro Cultural Ricardo Rojas. <http://www.bazaramericano.com/revista/sarlo.htm>.
- Soto, Américo. "Política cultural: la revista *Punto de Vista*." 2008년 9월 3일 검색. www.pl.org.ar/newsoto

-12.htm.

- Vezzetti, Hugo. 1983. "Situación actual del psicoanálisis." *Punto de Vista*. 19: 4-7.
- _____. 1986. "Derechos humanos y psicoanálisis," *Punto de Vista*, 28: 5-8.
- _____. 2003. *Pasado y presente. Guerra, dictadura y sociedad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Siglo XXI.
- Williams, Raymond. 1958. *Culture and Society*(『문화와 사회. 1780-1950』(198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_____. 1977. *Marxism and Literature*(『이념과 문학』(1982). 문학과 지성사; 『문학과 문화이론』(2003). 경문사)
- _____. 1979. *Politics and Letters. Interviews with New Left Review*. London: Verso.
- _____. 1980. *Problems in Materialism and the Culture*. London: Verso.
- _____. 1982. *The Sociology of Cul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문화사회학』(198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_____. 1989. *Resources of Hope. Culture, Democracy, Socialism*. London-New York: Verso.
- Punto de Vista*, 1-90(1998년 8월의 61호부터 2008년 최종 호까지 각 호의 차례와 수록된 글의 제목은 웹페이지 www.bazaramericano.com 참조).

성명: 조영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mail: choysh00@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8년 9월 27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20일